

AUTHOR 배종수

TITLE 루터의 요한복음 주해에 나타난 기독론

IN 교수논총

vol. 5 (135-163)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이다. 사실 부패성의 제거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다. 이런 점에서 소극적인 부패성의 제거보다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보다 폭넓은 신학구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는 주제는 동방교회, 서방교회를 포함할 수 있는 보다 깊은 신학적 주제이기도 하다.

둘째 성화의 단계가 중생과 성화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주장은 근본적으로 좋은 구조이지만 이것을 너무나 도식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개성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모든 종교체험을 두 단계로 고정화시켜 설명할 수 없다고 본다. 즉 종교경험의 다양화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결교회는 성결의 전파를 그 사명으로 하고 있다. 우리의 성결론의 장점을 발전시키며 그 약점을 보완하여 새시대에 맞는 성결론을 정립하여 그것을 한국교회와 사회에 전해야 한다. 여기에 성결교회의 존재의미가 있는 것이다.

루터의 요한복음 주제에 나타난 기독론

배종수
(조교수, 신약학)

□ 목 차 □

- I. 서 론
- II. 루터의 요한복음 서문의 기독론
- III. 루터의 요한복음 인자 기독론
- IV. 결론

I. 서 론

마틴 루터 신학의 그 내용이나 방법에 있어서 기독론은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 특히 그의 주석학적 방법론에서 성경을 해석할 때 기독론적으로 해야 함을 주장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주지의 사실이다.¹⁾ 일반적으로 기독론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예수의 신성을 강조하거나, 기

1) G. Hasel, *New Testament Theology: Basic Issues in the Current Debate* (Grands Rapids:Eerdmans, 1978), pp. 14—15.

독론을 그의 신성에서 출발하여 인성과 그의 사역으로 하향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의 기독론을 위로 부터의 기독론(christology from above)이라 하고, 그의 인성을 강조하거나 인성과 그의 사역에서 출발하여 신성으로 상향 연구하는 학자들의 기독론을 아래로 부터의 기독론(christology from below)이라 하여 두 부류로 나눈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루터의 기독론을 후자에 분류하는 경향이 있다.²⁾ 과연 그의 요한복음 설교에서도 그러한지 고찰할 것이다.

연구 방법은 연구의 대상인 루터의 요한복음 강론을 조사하는 문헌적 방법으로 할 것이며 그 연구 범위 역시 그의 요한복음 강론에 한할 것이다.

연구의 진행은 Ⅱ장에서 루터의 요한복음 서문 설교에 나타난 기독론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려고 한다. 그 이유는 이 서문이 요한복음 전체의 사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의 설교를 잘 이해함으로 그의 요한복음 기독론의 근거와 방향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이다. Ⅲ장에서는 그의 요한복음 인자론을 이해하고자 한다. 사실 요한복음에 인자 귀절이 13개가 있으나, 루터는 요한복음 5장, 9—13장, 17—22장의 설교를 넘겨 놓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다 다루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Ⅱ. 루터의 요한복음 서문의 기독론

요한복음의 서문(1:1—18)은 요한복음 신학의 근거와 기원으로서 또 요한복음 나머지 부분의 요약으로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요한복음의 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나 그 나머지 부분을 주석하기 위해 서문의 연

구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필자는 루터가 요한복음의 서문의 중요성을 이해했으리라는 전제하에 그의 요한복음 기독론을 이해하기 위해 그가 이 서문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선결 문제이므로 이문제를 먼저 취급하고자 한다. 사실 그의 서문 설교가 방대함으로 기독론에 필요한 몇몇 절을 선택하여 다루는 것이 지면의 한계상 불가피 할 것 같다.

1: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2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느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루터는 이 본문 설교에서 “그(요한)는 셋으로 구별되는 인격들 즉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동일한 단 하나의 신적 본질(that single divine essence)안에 거하신다. 아버지는 아들을 영원부터 낳으신다.”³⁾ 라고 말함으로 그의 기독론의 강조와 출발을 그리스도의 신성에 두고 있음과 아버지와의 관계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의 출생에 대해 쉽게 이해하도록 인간 출생을 비유로 들고 있다. 인간의 아들이 그의 아버지로 부터 자기의 육과 피와 존재를 물려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아들 역시 아버지로 부터 태어나며 그의 신적 본질과 본성을 영원부터 그 아버지로 부터 받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는 이 비유뿐 아니라 어떤 비유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신적 아들 관계와 그리스도 예수의 권위를 설명하는데 완벽하지 않다는 말도 빠뜨리지 않고 부언한다. 이 불완전한 비유를 충족시키기 위해 그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자기의 완전한 본질을 줄 수 없으며 단지 그 일

2) Martin Luther, *Werke EA 12*, p. 412. 클라우스 루니아 「현대 기독론 연구」 김호남역(서울:기독교 문서 선교회, 1986), p. 151에서 재인용.

3) Jaroslav Pelikan, ed., *Luther's Works, vol. 22: Sermons on the Gospel of St. John Chapters 1—4*(Saint Louis:Concordia Publishing House, 1957), p. 5 (이후로는 LW 22라고 표기함)

부만을 줄 수 있다고 말한다. 그의 이 논술이 주석학적 결론보다는 조직 신학적 결론에 가깝긴하나 본문이 함축하고 있는 진리를 설교하고 있다 는 의미에서 보면 그의 기독론은 아버지 하나님과 관련지어 아들 하나님의 완전한 신성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⁴⁾

루터에 따르면, 제 2위의 인격은 아버지가 아니며 성령도 아닌 아들로서 인성을 취하셨다. 이 아들은 구속의 때가 찼을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다. 이 아들은 영원 안에서 아버지로 부터 태어 났으며 요한은 최초로 그를 말씀이라고 부른다: “1: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2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14절에 가서야 그는 “말씀이 육신이되어”라고 기술한다.⁵⁾

루터의 이 본문 해석에서 그의 특징은 기독론을 설명할 때 주로 하나님 아버지와 결부시키지만 칼빈이나 웨슬리와는 달리⁶⁾ 성령과의 관계에서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본문에서 기독론을 삼위일체론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삼위이시며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오나 삼위의 인격에 구별을 두며, 아들은 성령을 통하여 자기를 계시하며, 반면에 성령은 아들과 아들의 복음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주어지며, 성령은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 그 말씀이심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을 믿게하는 것으로 묘사함으로 기독론에 있어서 성령론의 중요성을 루터는 부각시키고 있다.⁷⁾

그러면 루터가 기독론에 관해 한절 한절 해석한 것을 따라 그의 기독론을 연구하려고 한다.

4) LW. 22:6

5) Ibid.

6) 존 칼빈 「신약성경주석 3 : 요한복음 I」성경주석출판위원회편역(서울: 성서교재간행사), pp. 22—48(이후 칼빈 신약 주석 3으로 표기함)에서 단 한번 성령이란 말을 사용하나 기독론과 결부시키지 않는다. 존 웨슬리 「존 웨슬리 총서 5 신약성서주해 (상)」유동식 김용옥 역(유니온 출판사, 1983), p. 218. 성령의 사역을 강조하는 웨슬리도 이 본문에서 성령과 관계를 지우지 않는다(이후로 웨슬리 5라고 표기함).

7) LW 22:5—159 읽어 보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2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루터는 본문 해석에서 말씀이 무엇인가를 설명한다. 이 본문이 하나님은 한 말씀이며(God is a word)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바로 하나님 자신임을 주장하는 것으로 루터는 이해한다. 요한의 이 말씀은 창세기 1:1—3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고(God spoke a word) 빛이 있었다.”보다 더욱 생생하고, 요한은 모세로 부터 이 사상을 취하였으나 천지 창조 이전 태초에 그 말씀이 존재하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은 이 말씀이며 이 말씀은 영원부터 존재했다고 아주 분명히 전술하고 있다고 루터는 본다.

다시 말하면 창세 전에 하나님 안에 한 말씀(a Word)이 있었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었으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로서 아버지의 품 또는 마음 속에 계셨으며 성육하신 분으로 그는 이해한다.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 “하나님”(θεός)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하나님이 아닌 ‘신적인’(divine) 의미로 이해하는 것을 터너는 강력히 반대한다. 그는 θεός앞에 관사가 없다고 해서 명사가 형용사로 전환하지 않으며 더우기 명사가 술어로서 εἰμί앞에 오면 관사를 갖지 않는 것 이 일반적인 것으로 생각한다.⁹⁾ Cook은 만약 요한이 ‘신적인’ 의미를 의도했다면 θεός가 아닌 θεῖος라고 했을 것이라고 코멘트한 것은 잘 지적한 것이다.¹⁰⁾ 그러므로 요한은 그 단어를 ‘신적인’ 의미로나 ‘하나의 신’(a god)이란 의미가 아님을 나타내고 아버지 하나님과 다른 열등한 존재가 아님을 인지시키기 위해 그가 곧 하나님이라고 한 것이다.¹¹⁾

8) LW 22:7~8.

9) N. Turner, *Grammatical Insights into the New Testament*(Edinburgh: T. & T. Clark, 1983), p. 17.

10) W. R. Cook, *The Theology of John*(Chicago: Moody Press, 1973), p. 51.

11) 알버트 반즈 「신약성경주석 요한복음」 정중은역(서울: 크리스찬서적, 1987). p. 21.

우리는 여기에 비추어 볼 때 루터가 요한의 말씀을 선재자, 비 피조자,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the only-begotten of the Father, God's only-begotten Son), 성육한 자 그리고 빛으로 이해한 것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이 결론을 위한 그의 접근방법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그가 요한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각이나 발언(utterance)과 동일시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사람은 속으로 자기 자신과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대화할 때에, 그는 자신에게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될 일을 쉬지 않고 제안하며 그런 말들(생각들)로 그의 마음이 가득차 있듯이¹²⁾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채, 하나님도 영원부터 자기 신적 마음 안에서 자기 자신과 말하거나 연설하거나 생각하거나 대화한다.¹³⁾ 이것이 그의 말씀이며, 영원부터 그는 하나님의 부성적 마음 속에 있었으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한다.¹⁴⁾ 루터는 하나님의 생각 자체에 위격을 부여한다. 하나님의 사상과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에 위격(인격)을 부여하는 것은 모르긴 하지만 온당하게 여겨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생각이나 사상은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삼위 간의 대화이거나 삼위 각 위격의 생각이거나 아버지의 생각이지, 그(하나님의 내적) 대화나 사상에 위격(인격)을 인정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지 모르겠다. 하나님의 생각 즉 삼위의 사상이나 대화를 아버지께서 제 이위 인격인 아들을 통하여 사람에게 자기의 뜻을 계시함으로, 그 아들을 요한은 말씀이라고 불렀을 것이고 바울과 히브리서기자는 그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불렀을 것이다. 왜냐하면 말씀이 사상을 외적으로 표현하듯 하나님의 사상이나 대화(계

12) When a man has a thought, a word, or s conversation within himself, he speaks to himself incessantly and is full of words that suggest counsel as to what to do or not to do.

13) Thus God, too, from all eternity has a Word, a speech, a thought, or a conversation with Himself in his Divine heart, unknown to angels and men.

14) LW, 22:9.

획)을 아들이 사람들에게 계시하고 보여주기 때문이다. 둘째로 루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말씀이나 사상이나 대화 명사 앞에 부정관사 'a'를 두어 '하나'의 개념을 부여함으로 하나님에게 많은 말씀들이나 사상들이나 대화들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허락함으로 많은 피조되지 않은 아들들이 있을 가능성이 오해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각주 13번 영문참고). 셋째는 루터는 "말씀이 존재했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말씀이다"¹⁵⁾라고 함으로 요한의 의도에 일치하지 않는 것 같다. 요한은 "하나님은 이 말씀이다"라고 하지 않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그(요한)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였으나 '하나님이 말씀이다'라고 말하지 않았다. 후자의 경우에는 하나님과 말씀이 꼭 같다는 뜻이 된다. 그러므로 동일화 내지 동일성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요한은 말씀보다는 하나님 편에 더 많이 무게를 싣게 하는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¹⁶⁾라고 한 레온 모리스의 주석이 타당성을 갖는 것 같다.

1: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3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 이 없느니라.

루터는 이 두절에서 '존재했다'(existed)와 '창조되었다'(created)란 단어에 주목하여 설교를 하고 있다. 피조된 해와 달과 별과 땅과 만물들 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은 것은 전에 존재하지 않은 때가 있었으나 태초에 만들어졌던 것이나, 반면에 시작이 없거나, 창조되거나 만들어지지 않고 있거나 존재하는 것은 이미 이전에 존재했음이 틀림없다고 그는 말하면서, 후자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아들

15) Ibid., p. 8.

16) Leon Morris, *The Gospel According to the John(NIC)*(Grand Rapids: Eerdmans, 1971), p. 78.

을 적용하고, 전자에는 후자에 의해 창조된 만물을 대입하여 설명한다. 이렇게 함으로 그는 그 말씀이 신성과 선재성을 소유하고 있음을 설파 한다.¹⁷⁾

칼빈도 이 점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 어떤 의심도 하지 못하도록 그는 분명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선언한다”¹⁸⁾고 함으로 접근 방법은 다르지만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사실 “태초에… 계시니라”(‘Ἐν ἀρχῇ ἦν’)의 “…‘계시느니라”는 무시간적, 계속적 미완료 과거 시제로서 과거에 계속적으로 지속하고 있는 상태를 생생하게 표현하는 시제이므로¹⁹⁾ 이 단어에서 말씀의 자존성과 선재성과 영원성을 찾아내는 것이 정당한 주석이라고 할 것이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는 이 귀절의 강론에서 그 말씀의 상태와 존재 장소뿐 아니라 아버지의 인격과 그의 인격의 구별을 강조한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는 하나님이었다”란 본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풀이하면서, 분명히 그 말씀은 아버지의 인격과 구별되는 인격이라고 한다.²⁰⁾ 그는 인간의 이성은,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면 두 하나님이 있다는 의미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요한은 하나님의 신적 본질 안에 서로 구별되는 세 인격이 있음을 원하며 이 셋을 연합시켜 그들이 세 하나님으로 분리되는 것을 반대하고 오로지 한 하나님만 즉 만물을 만드신 성부 성자 성령이신 하나님이 계신다고 주장한다고 한다.²¹⁾ 더우기 루터는 이 본문 해석에서 “구별되는 두 인격이 있으나 여전히

17) LW 22:13~14.

18) 칼빈 신약주석, 3:25.

19) R. G. hamerton-Kelly, *Pre-existence, Wisdom, and the Son of man* (Cambridge: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3), p. 203.; H. E. Dana and J. R. Mantey, *A Manual Grammar of the Greek New Testament*(Toronto: the Macmillian Company, 1957), p. 187.

20) LW 22:15.

21) Ibid.

하나의 단일하고 영원하며 참된 하나님인 계시며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 부터 구별되는 한 인격이며 동시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님의 신적 실재이며, 세 인격은 하나님의 신적 본질에서 한 하나님이다”²²⁾라고 하므로 기독론을 삼위일체론적으로 해석하는 독특성을 보이고 있다.

2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루터는 이 2절 본문에서도 성부에 의존해서 기독론을 이해한다. 그는 복음서 기자가 아버지와 아들을 꼭 같이 구별되는 영원한 두 인격들이며 영원하신 아버지는 어느 누구로 부터 나오거나 창조되거나 만들어지거나 출생하지 않으나 반면에 아들은 영원한 아버지의 형상이며 아버지에게서만 태어나지만 만들어지거나 창조되지 않으며 그는 육신이 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버지와 한 신적 본질을 가진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나 아버지와 구별되는 인격이라고 설교한다. 웨슬리는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이었던 이 말씀은 태초에 존재하였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 말한 듯하다”²³⁾라고만 주제한다. 칼빈 역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전절의 요약이라고만 함으로 루터의 특성이 들키운다.

3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 이 없느니라

칼빈은 “요한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그의 하나님되신 속성을 선포한 후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그의 신성을 증명하고 있다.”²⁴⁾라고 주석한다. 루터는 여기에서 이 말씀의 선재를 찾아낼 뿐아니라 그는 아버지와 동역자요 함께 만물을 만든 동등한 창조자이며 마리아에게서 성육한 우리 주님이 아버지와 성령과 함께 실제적으로 참

23) 웨슬리, pp. 218~19.

24) 칼빈 신약주석, 5:26.

되고 본래적 하나님과 창조자라고 읽어 낸다.²⁵⁾ 이점에서 칼빈보다는 존재론적 뿐 아니라 창조적 사역에 있어서도 삼위일체와 결부시켜서 기독론을 이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Morris 역시 루터와 같은 입장에 선다. 요한이 만물의 존재 원인을 그 말씀에 돌리지만 만물이 그에 “의해서”(by) 만들어졌다고 하지 않고 그를 “통하여”(through)만들어 졌다고 함으로 창조 사역에서 두 인격의 관계를 말하는 것은 흥미롭다고 그는 말한다.²⁶⁾

4. 그 안에서 생명이 있었으니

사실 이 절은 판독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판독에 있어서 *kai χωρὶς αὐτοῦ ἐγένετο οὐδὲ ἔν. ὁ γέγονεν 1·4 ἐν αὐτῷ ζωὴ ἦν²⁷⁾*와 *kai χωρὶς αὐτοῦ ἐγένετο οὐδὲ ἔν. ὁ γέγονεν. 1·4 ἐν αὐτῷ ζωὴ ἦν²⁸⁾* 두 가지가 일반적이다. 전자는 ‘하나도 그가 없이 되어진 것이 없다. 그 안에 되(만들)어진 것은 생명이었다’로 읽어야 한다. 만약 이것이 피조된 만물을 의미한다면 그 안에서 만들어진 모든 것이 다 생명이 아니므로 뜻이 정확하지 않으며, 만약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만들어진 것이라면 그는 자존자가 아니고 피조자이므로 요한의 사상을 반영하는 판독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판독에 대해서 Morris는 반대한다.²⁹⁾ 후자의 판독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고 창조된 피조물의 생명의 원천으로서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의미한다고 정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생명은 자존이며 영원이며 무시무종이다. 그의 생명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며 창조자이다. 그 안에 생명이 있음으로 그는 창조자이다. 칼빈은 이 본문

25) LW, 22:20.

26) Morris, p. 80.

27) The Greek New Testament. 「표준 새번역」

28) The 21st edition of Eberhard Nestle's Novum Testamentum Graecce, 「한글 개역」, New King James version, TEV..

29) Morris, pp. 81–82.

에서 말씀이 모든 창조와 생명의 원천임과 보존임을 찾아 내었다.³⁰⁾ 웨슬레도 “모든 생명의, 존재하는 모든 것의 기초였다”³¹⁾고 한다.

헨드릭슨은 “영원 전부터 옛(구약)세대 전체를 통하여 생명이 말씀 안에 거하고 있었다는 뜻이다”라고 주석하고³²⁾ 모리스는 말씀이 생명의 원천임을 말한다.³³⁾ 그러나 우리는 루터의 이 본문 강해에서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한다. “그(말씀)는 자기가 태초에 창조한 것을 계속적으로 다스리고 보존한다”는 의미에서 그의 통치와 보존을, 일시적이고 덧없는 것은 무엇이나 시간 속에서 지나가고 죽고 망하지만 그는 스스로 영원히 거하신다 함으로 그의 영원성을, “그는 원하는 자가 누구든 그에게 생명을 주고 또는 그에게서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음으로 심판과 종말을, 그 안에 순수한 생명(sheer life)이 있음으로 그가 구원자와 심판자 되심을, “그는 생명이며 그 안에 생명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살고 있는 만물이 그 안에서와 그를 통해서 생명을 소유하고, 특히 인간이 그렇다”함에서 그가 생명의 원천임을, 또 창조자와 피조물의 구분을 루터가 주장함으로 그는 종교개혁자들이나 현대 주석가들 보다 더 넓고 깊게 본문을 이해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³⁴⁾”

1:4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 빛이 어두움에 비취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칼빈은 이 빛을 인간의 이성으로 해석한다. 어두움 속에 비치는 빛은 타락하여 어두워진 마음 속에 잔재해 있는 빛으로 해석하는 것은 어색하다. 웨슬레에게 있어서 그 빛이 이성을 의미하는 것인지 구원을 의미

30) 칼빈 신약주석, 3:27.

31) 웨슬리, 5:219.

32) 윌럼 헨드릭슨 「요한복음주석(상)」 문창수역(서울 : 아가페출판사, 1983), p. 104.

33) Morris, p. 82.

34) LW, 22:29–30.

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³⁵⁾ Morris는 요한이 그 복음서 전편에 흐르고 있는, 예수께서 생명을 주고 빛을 주는 이로 길을 닦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³⁶⁾ 루터는 칼빈처럼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자기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나누어 주는 계시를 의미하기도 한다.³⁷⁾ 만약 루터의 해석이 구원사 내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계시로 이해된다면 이 해석은 정당한 것이다. 왜냐하면 요한이 말씀을 생명과 생명의 빛으로 명칭을 바꾼 것은 말씀의 인격에서 그의 구원사역으로 넘어가는 길을 열고 그의 사역을 통한 그의 신성을 입증하려는 의도가 요한복음 전체에 맥락히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요 20:31).

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에서 칼빈은 육신을 부폐한 인간성이 아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의미하며 몸만이 아닌 영혼을 가진, 아버지와 항상 함께 거하셨던 아들이 인간이 되신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과 인간이 되시는 것과 그의 인격의 통일성이 그의 성품을 유지해 줌으로 신성은 신성대로, 그리고 인성은 인성대로 유지된다고 해석한다.³⁸⁾ 루터는 이 점에 있어서 칼빈과 의견이 일치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셨다는 의미를 부가하며 다양한 의미를 유추해 낸다. 하나님의 참되시고 본질적인 아들인 말씀이 우리와 꼭 같은 살과 피를 가진 인간이 된 것은 우리를 큰 영광 가운데 테리고 가, 우리의 사자 백체가 하나님께 거하시는 천국에 거하게 하며, 악마를 대적하게 하며 하늘의 상속자들로 만들기

35) 웨슬레, 5:219.

36) Morris, pp. 83–87.

37) LW, 22:33–38.

38) 칼빈 신약주석, 3:39–40.

위해서라고 루터는 설교한다.³⁹⁾ 두 개혁자들은 칼케톤회의를 잘 반영하고 있는것 같다.

“… 그는 완전한 하나님께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시니… 양성이 혼합되지 않고 변함없고 불기분적으로 불가불리적으로 결합되어 계심을 믿는다. 양성의 특성이 결단코 연합에 의해 해소되지 않으며 도리어 각 성의 특성이 보전되고, 두 인격으로 나뉘어거나 구분되지 않고 한 인격과 한 본질로 작용하며, 한 분이들이시요 득생하시며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⁴⁰⁾

“말씀이 육신이 되어”의 “되어”(*εγένετο*)는 볼트만의 주장처럼 영지주의의 구원 신학의 영향을 받은 로고스의 변장(disguise)을 의미하지 않고⁴¹⁾ *εγένετο*는 기동적 단순파거로서 선재하신 로고스(*ην ὁ λόγος*)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신적 본질을 공유하면서 참 인간(flesh or man, not a man)이 되심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인격자이신 로고스가 인간의 완전한 인성을 소유하여 세계 속에 들어와 인류의 역사 속에 그의 위치를 옮겨 놓는 것을 의미한다.

1:15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와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칼빈은 신분상의 월등성을 강조하여 주석하고⁴²⁾ 웨슬레는 “나보다 앞선 것”은 신분상의 우월로, “나보다 먼저 계심”은 본질상으로 선재하심으로 이해한다.⁴³⁾ 루터 역시 후자처럼 이 절에서 말씀의 신분상의 월등

39) LW, 22:110–11.

40) 헨드릭슨, P. 120.

41) 볼트만 「요한복음 연구(상)」 허혁역(서울 : 성광문화사, 1983), p. 15.

42) 칼빈 신약 주석, 3:42–43.

43) 웨슬레, 5:220.

함뿐아니라 선재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가 이렇게 이해하는 이유는 그의 설교 내용을 요약해 보면 그는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며 창조자요 빛이며 이 빛을 증거하기 위해 온 세례자 요한이 그 보다 세상에 반년 먼저 태어났지만 그는 그 보다 창조자로서 그의 주로서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⁴⁴⁾

18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나타내셨느니라

루터는 ‘본다’와 ‘나타내었다’를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 초점을 맞추어 설교한다. 이 절에 대한 그의 열번째 설교를 읽어 보면 그는 기독론보다는 이것을 전제로 하고 그리스도의 지식에 의한 구원에 관심을 두고 있음을 사실이다. 그는 ‘독생하신 아들과 복음을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직시할 수 있으며,’⁴⁵⁾ “복음에 관한 지식 곧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주는 메세지를 하나님의 얼굴이라”⁴⁶⁾고 한다.

본 필자는 루터의 근본적인 주장에 동의하면서도 문제로 지적하는 것은 구원에 관한 지식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면, 본문이 암시하고 있는 구약의 기독론에 관해 좀 언급을 하고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지식이라고 했어야 한다는 점이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를 루터는 문자 그대로 받아 들여 구약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 같다. 그는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그의 등만 보았다고 한다. 물론 사실이다. 그러면 다른 조상들도 보지 못하였는가? 하갈의 여호와의 사자의 만남(창 16:7~13), 마르레 상수리 수풀 근처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만남과 소동에 관한 대화(18장), 이삭의 제사시 여호

44) LW., 22:125~38.

45) Ibid., p. 157.

46) Ibid., p. 158.

와의 사자의 만남(창 22장, 특히 12절), 야곱의 꿈에 나타난 여호와(28장), 가시떨기에서 모세에게 나타남(출 3:1~4:17), 여호와의 군대장관(수 4:3~15), 마노아에게 나타남(13:1~22), 야곱의 축복에 언급된 하나님 곧 그 사자(창 48:15~16)등등 구약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건을 많이 기록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했다. 사실 루터는 창세기 48:15~16의 설교에서 삼위일체적 관계에서 그 사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고 있음이 틀림없다.⁴⁷⁾ 그렇다면 구약의 제시와 이로인한 구원도 하나님(여호와)의 사자나 하나님(여호와)으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⁴⁸⁾를 통한 것이고, 신약에서는 그가 성육하여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으며 그에 관한 지식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설교했어야 했을 것이다(요 14:7, 9).

요한복음 1:1~18에 대한 루터의 설교에 나타난 기독론은(이 부분에 대한 그의 설교가 방대하여 일일이 다 조사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아주 분명하다. 이 부분의 설교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의 기독론을 간단히 요약하면 요한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계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이 아니고 창세 전에 그의 말씀이므로 창조를 통해 계시하는 것이다.⁴⁹⁾ 왜냐하면 “그는 영원전부터 자기의 부성적 기습 속에 말씀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를 통하여 세상을 창조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다.”⁵⁰⁾ 그는 존재론적으로 바울에게서는 하나님의 형상인 것같이 요한에 있어서도 태초로 부터 그의 말씀이므로 그의 아버지의 계시자이다. 그는 영원부터 아버지로 부터 태어나며 무시무종으로 만물의 창조 이전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계신 제 2위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는

47) Jaroslav Pelikan, ed., *Luther's Works volume 8:Lectures on Genesis Chapters 45–50*(Saint Louis:Concordia Publishing House, 1966), pp. 161–65(이후로는 LW 8이라고 표기).

48) John T. McNeill, ed. *Calvin: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Trans. and indexed by F. L. Battles, vol. I, chap. 13. 9–10.

49) LW, 22:9.

50) Ibid., 22:9.

창조자며 생명으로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며 생명의 빛이며, 구원자인 동시에 심판자이시기도 하다. 그는 마리아에게서 사람으로 태어났으며 한 인격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혼합없이, 분리되지 않고 두 인격이 아닌 한 인격 아래 통합되어 양성이 공존하는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사람이시다. 그의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진리와 은혜가 그를 통해서만 전달된다. 그가 계시나 창조의 행위를 하기 전에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낳으시는 영원한 말씀임을 루터는 그의 요한복음 서문 설교에서 재삼 재사 강조함으로 루터의 요한복음 서문의 기독론은 위로 부터의 기독론(christology from high)이라고 할 수 있다.

III. 루터의 인자론

Paul Althaus의 견해를 따르면, 루터는 위에서 살핀대로 전통적 기독론에 동의하고 있음을 사실이다. 그는 전통신학자들 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인간을 위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새롭게 깊이 다루었다는 것이 그의 특징이다.⁵¹⁾ Althaus는 루터의 기독론이 요한의 특징을 취하여 요 14:9 “나를 본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를 그의 기독론의 핵심 본문(the ultimate text)으로 삼았다⁵²⁾란 말이 옳다면 아버지와 아들을 한 본질을 공유하는 한 분으로 표현하므로 그의 기독론은 기능 이전에 본질을 강조하고 있음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는 또, “루터가 인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를 발견하고 그의 어디에서도 발견하지 않는다”⁵³⁾고 한다. 이것은 아마 그의 구원에 대한 그의 과거 수도사 사절의 노력에 대한 실패에서 온 결과일 가능성이 있

51) Paul Althaus, *The Theology of Martin Luther*, trans. by R. C. Schultz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66), pp. 181.

52) Ibid., p. 182.

53) Ibid.

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이 루터를 아래로 부터의 기독론자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본 필자도 루터의 방법에 동의한다. 사실 제 4복음서 저자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의 아버지를 중요시 한다. 그러나 그는 이 이전에 그리스도의 신성과 선재성을 언급하고 그의 성육으로 그리고 그의 구원사역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루터가 요 14:9를 자기 기독론의 관건으로 삼는다면 요한의 수순을 따르고 있음이 틀림없다. 요한은 예수의 신성을 중요하게 먼저 문두(1:1)에서 강조하고 그의 인성을 요 1:14에서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이 요한 복음의 주제이기 때문이다.

그의 인자됨은 그의 성육에서 출발한다(요 1:14). 우리는 여기에 그 복음서에 나타난 모든 인성에 관한 구절을 지면의 한계 때문에 다 취급 할 수 없고 몇몇 인자 구절들을 루터가 어떻게 기독론을 확립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한다. 우리는 인자 기독론을 다루기 위해 인자의 신성과 인자의 인성과 사역을 함축하는 귀절들을 분류하여 두가지의 표제 아래 다루려고 한다.

1. 인자의 신성

요 1:51을 루터는 두가지 점에서 잘못 해석함으로 인자 기독론의 핵심을 이 설교에서 놓치고 있는 것 같다. 예수가 언급하고 있는 하늘 문이 열리는 때를 과거에 일어난 예수의 세례 사건에 결부시키는 오류이다.

예수는 이 사건이 미래에 일어 날 사건으로 제자들이 볼 것이라(*οφεσθε*)라고 했다. 또 하나의 오류는 결정적인데 그는 사단다리가 언급되지 않고 천사들만 오르락 내리락 함으로 야곱의 환상 자체를 영해하여 예수를 가르킨다고 한 것이다. 필자는 예수를 상징할 만한 사단다리가 없음으로 환상이 그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예수의 의도는 자기가 바로 창 28:13의 여호와로 생각하고 오해를 유발할 사단다리를 제거했

을 가능성이 크게 보인다. **עַל־יְדֵיכֶךָ אָנֹכִי יָדַעֲתָה** (창 28:13)의 번역은 야웨 하나님이 사다리 꼭대기에 서신것이 아니라 야곱 옆에 서 계셨던 것이다.⁵⁴⁾ 그 이유는 첫째 암 9:1 **עַל־הַמִּזְבֵּחַ נִצְבֵּא רְאִיתִי אֱלֹהִיךָ** 에 비추어 보면 사다리 위가 아니고 야곱 옆이 가능하며, 둘째 NIV, NASB, NKJV 등은 난외주에 “There beside him”으로 번역하며,⁵⁵⁾ 셋째 야곱이 일어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계신다고 한 곳은 천국이 아니라 지상이며(창 28:16), 넷째 이 곳이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라고 한 곳이 지상이기 때문이다며, 다섯째 요 1:51(*kai λέγει ἀντῷ, οὐ μὴν ἀμὴν λέγω ὑμῖν, ὅφεσθε τὸν οὐρανὸν ἀνεῳγότα καὶ τὸν ἀγγέλους τοῦ θεοῦ ἀναβαίνοντας καὶ καταβαίνοντας ἐπὶ τὸν νἰὸν τοῦ ἀνθρώπουν*)과 비교하면 창 28:13이하는 야곱 옆에 서 있는 여호와께서 새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지상에 와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실 인자 예수의 예표가 되는 사건으로서 예수에게 성취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요한은 인자 사역으로 옮겨 가면서 그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루터는 놓치고 있는 아쉬움이 있다.

3:13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kai οὐδεὶς αναβέβηκεν εἰς τὸν οὐρανὸν εἰ μὴ ὁ ἐκ τοῦ οὐρανοῦ καταβὰς, οὐ νιὸς τοῦ ἀνθρώπουν.*).

루터의 설교 본문에는 ‘인자’란 칭호가 빠져 있다. 누락된 사본을 사용했는지, 본문이 신성을 강조함으로 의도적으로 누락시켰는지 아니면 자기의 설교에 중요성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삭제한 것인지 알 수 없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이 본문에서 인자의 편재성을 인정한다. 렌스키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동안에도 하늘에 존재하셨다고 본다. 그래

54) F. Delitzsch, *A New Commentary on Genesis*, trans. by S. Taylor (Edinburgh:T. & T. Clark, 1899), II:164.

55) NEB는 본문에 “The LORD was standing beside him...”이라고 하고 난 외주에서 “on it or by it.”로 번역하고 있다.

서 그는 “내려 오신 자는 여기서 지금 인자로서 계시며, 내려 오셨다고 해도 하늘을 아주 떠나버린 것이 아니고 그는 여기 계시면서도 또한 하늘에 계시는 분이시다... 예수는 그가 인자로서 땅위에 살지만 하늘에 존재하시는 분이다”라고 주석한다.⁵⁶⁾ 루터 역시 이렇게 해석하며 그러므로 그의 신적 기원과 인간적 요소를 강조하는 근거로 삼는다. 루터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늘에서 내려 왔으며 구주로서 마리아의 참아들이며 하나님의 독생자이다. 그는 두 아들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며 동시에 마리아의 유일한 아들(only one Son of God the Father and of the Virgin Mary)도 된다. 신성과 인성 두 본성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이며 참 사람(very man)으로서 하나님과 마리아 둘다의 유일한 아들이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로서 내가 낳고 젖먹인 이 아들 예수는 영원 속에서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역시 나의 아들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θεοτόκος*)이며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는 시간속에서 사람이 되신 영원부터 참 하나님(very God)이다.⁵⁷⁾

2. 인자의 인성

인자의 인성은 영생을 인간에게 전달하기 위한 영원한 수단으로서 필요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인성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전달되며 이것을 전달하기 위해 그의 고난이 필요하다. 그러나 요한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인자의 들판으로 표현한다. 이 말에는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으로 인한 수난과 영광을 동시에 표현하기 위해 선택되고 있는 단어이다. 그러면 우리는 루터가 요한의 인자의 인성을 어떻게 강

56) 렌스키, 「주석성경 요한복음(상)」 장병일(서울:백합출판사, 1973), pp. 215-16.

57) LW, 22:322-23.

론하는지 연구하고자 한다.

3:14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루터는 14절의 구리 뱀에 관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동정녀에게 태어나 저주받은 백성인 우리처럼 되셨고 독이 가득하고 악하고 유해한 벌레같이 십자가에 달렸다. 옳다. 그는 낙원에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빠뜨린 그 뱀 바로 악마와 같다.”⁵⁸⁾라고 설교한다. 그의 이 과격한 해석은 아마 무의식 속에서 이사야 53:12 “그는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에 근거하였을 것이며, 이에 비추어 보면 타당성을 잃지 않은 듯 하다. 그는 이사야가 예수가 많은 사람의 죄들을 지고서 가장 멸시받는 죽음의 형태로 강도들 가운데서 죽을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이다.⁵⁹⁾ 루터가 예수를 뱀에 비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뱀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자기 아들의 예표를 보셨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그는 저주 받고 멸시받은 사람의 형태 곧 뱀의 형태를 취함으로 구주가 되었다”⁶⁰⁾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그는 사실 뱀이 아니다. 그는 나의 죄와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하고(요 1:29) 나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다. 그는 우리를 위해서만 뱀이 되었다”⁶¹⁾라고 강론하여 그의 인성과 인성의 사역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확인한다.

6:27 이 양식을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 라…

58) LW, 22:341.

59) Hilton C. Oswald ed., *Luther's Works 17: Lectures on Isaiah Chapters 40 – 66*(Saint Louis: Concordia Publishing House, 1972), p. 231.

60) LW, 22:343.

61) Ibid., pp. 343 – 34.

…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버나드는 “영원한 생명을 지속케 하는 그 영적 양식을 주는 자는 바로 그 인자이며 그이만이며, 이것이 그의 독특성이고 그의 신비이다”⁶²⁾라고 주석한다. 루터는 ‘예수께서 영원한 양식에 유대인의 관심을 집중시킨 후 그리스도가 이 음식의 수여자인 인자와 동일시하여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했다고 했다. 루터는 그리스도가 인자란 명칭을 언급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보고 듣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한 아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사람들에게 선언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한다.⁶³⁾ 이것이 사실이라면 여기에 루터는 인자 칭호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음을 이해했을 것이다. 그리스도 자신이 첫째 인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임으로 자기의 신성을 인자 칭호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것이며, 둘째 그는 하나님이 되었음을 인자 칭호를 통해 주지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이 틀림없다는 것이다. 루터는 그리스도가 “너희가 보는 나의 살과 피가 너희를 영원히 지탱해 주는 음식이며”, “나 자신의 살과 피가 이 음식이라”⁶⁴⁾란 의미로 말했다고 한다.

루터에 의하면 하나님은 인친 자는 그의 아들이요 이 양식인 그 아들인 사람이다. 하나님은 유일한 한 인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인은 성령이다.⁶⁵⁾

62) J. H. Bernard,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Gospel According to St. John*(ICC)(Edinburgh:T. & T. Clark, 1976), I :91.

63) Jaroslav Pelikan, ed., *Luther's Works vol. 23: Sermons on the Gospel of St. John Chapters 6 – 8*(Saint Louis: Concordia Publishing House, 1959), p. 14.

64) Ibid.

65) 칼빈은 칼빈신약주석 3:218에서 이 인침을 그리스도의 신성에 적용했던 옛 작가들의 견해와 루터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고 “주께서는 여기서 그의 영원한 본체를 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이며 우리를 향한 그의 직책이 무엇이며 그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찾고 구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한다.

그려므로 그 인자는 그 양식을 준다. 그 양식을 주는 그 인자는 그리스도 주님이시며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 났다.⁶⁶⁾ 루터가 여기서 강조하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자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 난 인자의 인성인 것이다. 그 이유는 그가 그리스도를 사람이나, 마리아의 아들, 인자 또는 괴와 살에 연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믿는다”, “그리스도에게 온다”를 “먹는다”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기 때문이다.⁶⁷⁾

이 점에 있어서 루터의 견해가 정당하다. 하늘의 생명을 인간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하나님으로 내려 오셔야 하지만 인간에게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전달하는 것은 그의 인성을 통해서야 하기 때문이다. 그의 살과 피가 없이는 그들의 죄와 형벌을 담당할 수 없고 그의 인간성을 통하여 않고는 하늘의 계시를 인간에게 전달하여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⁶⁸⁾

8:28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듣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루터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들림(lifted Me up)’을 ‘십자가 처형’이나 ‘십자가에 못박음’으로 해석한다. 이것은 그가 인자에게 고난을 연결함으로 인자의 순수 이성을 읽고 있다는 증거이다. 루터는 예수께서 혈육의 상태에서 수행하는 임무를 완전히 끝내고 하늘로 부터 들려 오는 그의 음성을 들을 때도 그는 사람으로 남아 있을 것을 말함으로 그의 인성을 강조하고 있는 듯하다.⁶⁹⁾

66) Ibid., pp. 15–17.

67) Ibid., p. 42.

68) Morris, pp. 172–73.

69) LW, 23:374–75.

3. 루터의 인자 개념에서 신인 양성의 조화

P. Althaus는 인간 예수로 부터 시작하여 인간에서 하나님으로 지향하는 루터의 방법론과 아래에서 위로 지향하는 현대신학의 기독론과 혼동해서는 안된다고 한다. 그의 이유는 첫째 루터가 인간 예수로 부터 시작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이나 하나님이 그 안에 현존한다는 사실을 확신하기 위해 예수의 신성에 대해 성경이나 교회를 통해 확신하고 있지만 그의 관심은 우리에게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 주기 보다 그의 사역이 무엇인지 보여준다는 것이다. 둘째로 루터의 인간 예수관은 현대 신학의 이해를 넘어서서 소위 초월적 기독론이 예수의 인성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루터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아래에서 위로’(from below to above)의 방법을 따르도록 권하며, 이 방법은 인간으로서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으로서의 그리스도로 이 방법으로 하나님에 이르게 한다고 루터는 권한다는 것이다.⁷⁰⁾

우리는 루터의 요한복음 서문 연구와 인자 연구에 따른 요한복음에 나타난 그의 기독론만은 Althaus의 견해에 동조하기에 어려움을 느낀다. 루터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많이 다루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의 이 연구에 미루어 보면 어디 까지나 그의 신성에 근거한 것이지 전제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이것은 적어도 그의 요한복음 서문의 장론에서 밝혀진 사실이다. 그가 인자의 구절을 다를 때도 그는 인성의 치우쳐 그의 인성에서 그의 신성으로 지향한다고만 볼 수 없다. 적어도 필자가 보기에는 그의 신성과 인성에 강조에 균형을 유지하면서 인자 귀절이 요구하는 신학에 맞추어 강론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의 이 균형 감각을 여기에서 다루고자 한다.

우선 인자의 신성과 인성에서 다룬 귀절도 간단히 재고함으로 이 증명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요 3:13 장론에서 그리스도가 천적 기원으로

70) Althaus, p. 186–87.

서의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심과 동시에 마리아의 아들됨을 나란히 언급하며(LW, pp. 322–23), 14절에서 ‘Christ is our Lord’, ‘Christ is true God from eternity’(LW, 22:334)와 ‘He became incarnate of the Virgin Mary(LW, 22:334),’ ‘동정녀에게서 난 하나님의 아들’(LW, 22:341), 그리고 6:27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고 듣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한 아들을 가짐’(LW, 23:14), 사람이신 그의 아들, 양식이신 그 아들(LW, 23:15),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인자이신 주 그리스도(LW, 23:17)라고 말하면서 38절과 39절에서, 루터는 “성 요한은 두 의지를 하나로 연합시키며, 아버지와 아들의 존재를 하나로 만들며, 하나의 의지, 하나의 마음, 하나의 지혜, 하나의 사역, 하나의 신성(Godhead) 그리고 하나의 실재(one thing) 만든다”(LW, 23:61)고 말하므로 그의 신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음을 숨길 수 없다.

그리면 우리가 아직 다루지 않은 귀절을 살펴보고자 한다.

6: 62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것 같으면 어찌 하려느냐

이 절은 괴상적으로 읽어도 예수가 인자의 이전 기원이 하늘임을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⁷¹⁾ 루터는 그가 이전 있던 곳은 하늘임을 인식한다. 그러므로 그는 “영원부터 하늘에서 아버지와 함께”⁷²⁾ 있었다고 보며, 그 아버지가 믿음외에는 표현할 수 없고 신비한 방법으로 영원부터 그를 낳았다고 한다. 그러나 루터는 인자란 말을 그리스도가 선택한 것은 “그가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임을 나타내기를 원했다”⁷³⁾고 설파한다. 이로 미루어 보면 루터는 인성을 강조하는 귀절에서는 그의 신성을 논급하고 그의 신성을 가르치는 귀절에서는 그의 인성

71) 헨스키, p. 430를 읽어 보라.

72) LW, 23:161.

73) Ibid.

을 언급하여 신학적 균형을 맞추어 줌으로 자기의 청중들이 올바른 신앙을 갖도록 배려한 느낌을 받는다.

그가 그의 설교에서 기독론의 양성의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는 Marc Lienhard의 *Luther: Witness to Jesus Christ*란 책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이 텍스트에서 그리스도와 구원에 관한 루터의 이해에 중요한 한 개념이 나타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역시 고난을 받았다. 물론 하나님의 본성에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인격 안에서 그렇다.”⁷⁴⁾고 한다. 이 결론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 말속에서 그리스도의 양성이 그의 한 인격에 통합되어 조화롭게 상관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루터가 인식했다는 것이 우리의 증거이다 물론 루터의 고난설은 하나님의 고난을 의미하는 성부 고난설(Patrispassianism)이 아니고 하나님과 고난받는 인성 사이에 밀접한 연합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고난설(Dei-passianism)이다.⁷⁵⁾“그러나 인격의 연합은 인성 안에서의 신성의 참여 뿐 아니라 역시 신성 안에서 참여를 의미한다”⁷⁶⁾란 언급 또한 루터의 기독론의 양성 조화를 의미할 것이다.

IV. 결론

우리는 먼저 위에서 연구한 것을 요약하려고 한다. Ⅱ장 루터의 요한복음 서문의 기독론에서 루터의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은’ 영원 자존자, 하나님의심, 선제자,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계신 분, 생명 그리고 빛으로, 아버지의 계시자로서 그 품 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강론했다는 것을 연구했다. 그의 기독론은 이 서문에서는 적어

74) Marc Lienhard, *Luther: Witness to Jesus Christ*, trans. by E. H. Robertson(Minneapolis:Augsburg Publishing House, 1982), p. 171.

75) Ibid.

76) Ibid.

도 위로 부터의 기독론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Ⅲ장에서는 그의 인자 기독론을 다루었다. 그는 이 인자 귀절을 강론할 때 그의 신성과 인성 양성에 균형을 이루어 강론하며 그 원인은 좌우로 치우침으로 잘못된 신앙을 방지하기 위한 배려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인자의 인격과 그의 행위에 적당한 균형을 이룸으로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을 보여 주기 위한 의도일 가능성도 있다. 그것은 그의 균형이 지면할에에서 배분이 균등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여하튼 우리의 작은 연구에 의하면 그의 요한복음 기독론은 아래로 부터의 기독론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서문과 인자에 있어서 전자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고 여기서 시작하여 복음서 전체의 사역으로 나아감으로 위로 부터의 기독론에서 아래로 부터의 기독론으로 진행하며, 후자에서는 상당한 조화의 균형으로 두 기독론의 진행이 상호 보완적이라는 것이다.

지면의 한계 때문에 루터가 설교하고 있는 모든 부분과 여타의 기독론을 취급하지 못한 것이 너무 많다. 루터의 그 기독론을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 ‘하나님의 어린양, 선한 목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야, 우리가 다룬 본문외에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I am 귀절등등에 대한 루터의 이해에 대한 많은 연구 과제는 다음 기회에 넘길 수 밖에 없다.’

도 서 목 록

1. 성경

The Greek New Testament,

「표준 새번역」

Novum Testamentum Graecce(The 21st edition of Eberhard Nestle)

「한글개역」

New King James version

TEV

NEB

NIV

NASB

2. 번역서

렌스키, 「주석성경 요한복음(상)」 장병일, 서울 : 백합출판사, 1973.

클라아스 루니아, 「현대 기독론 연구」 김호남역, 서울 : 기독교 문서 선교회, 1986.

볼트만, 「요한복음 연구(상)」 허혁역, 서울 : 성광문화사, 1983.

알버트 반즈, 「신약성경주석 요한복음」 정중은 역, 서울 : 크리스챤서적, 1987.

윌리엄 헨드릭슨, 「요한복음주석(상)」 문창수 역, 서울 : 아가페출판사, 1983.

존 웨슬리, 「존 웨슬리 총서 5 신약성서 주해(상)」 유동식, 김용옥 역, 유니온 출판사, 1983.

존 칼빈 「신약성경주석 3 : 요한복음 I」 존 칼빈 성경주석 출판위원회 편역, 서울 : 성서교재간행사.

3. 외국어 도서

- Althaus, Paul. *The Theology of Martin Luther*, trans, by R. C. Schultz, Philadlphia:Fortrees Press, 1966.
- Bernard, J. H.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Gospel According to St. John(ICC)*. vol. I :Edinburgh:T.&T. Clark, 1976.
- Cook, W. R. *The Theology of John*. Chicago:Moody Press, 1973.
- Dana, H. E. and J. R. Mantey, *A Manual Grammar of the Greek New Testament*. Toronto:the Macmillian Company, 1959.
- Delitzseh, F. *A New Commentary on Genesis*. Trans. by S. Taylor. Edinburgh:T.&T. Clark, 1899.
- Hamerton-Kelly, R. G. *Pre-existence, Wisdom, and the Son of man*. Cambridge:Cambridge Universty Press, 1973.
- Lienhard, Marc. *Luther:Witness to Jesus Christ*, trans. by E. H. Robertson. Minneapolis:Augsburg Publishing House, 1982.
- McNeill, John T. ed., *Calvin: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vol. 1 , Trans. and indexed by F. L. Battles,
- Morris, Leon. *The Gospel According to the John(NIC.)*. Grand Rapids:Eerdmans, 1971.
- Oswald, Hilton C. ed., *Luther's Works 17:Lectures on Isaiah Chapters 40-66*. Saint Louis:Concordia Publishing House, 1972.
- Pelikan, Jaroslav. ed., *Luther's Works, volm 8: Lectures on Genesis Chapters 45-50*. Saint Louis:Concordia Publishing House, 1966.
- _____, *Luther's Works, vol. 22:Sermons on the Gospel of St. John Chapters 1-4*, Saint Louis:Concordia Publishing House, 1957.
- _____, *Luther's Works, vp.. 23:Sermons on the Gospel of St. John*

Chapters 6-8. SaintLouis:Concordia Publishing House, 1959.
Terner N. *Grammatical Insights into the New Testament*. Edinburgh:T. & T. Clark, 1983.